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 충현의 만나

2005

가정예배

고린도후서 · 잠언

전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총회  
총회



# 기 도 제 목

- 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써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소서.
- ② 총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③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④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⑤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함께 지어저가게 하소서.
- ⑥ 모든 새가족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⑦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현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 ⑧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가정예배 · 구역예배 교재

9

2005

# 충현의 만나

가정예배      고린도후서 · 잠언  
전도서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재입니다

## 좁은 길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 구주 예수께서 앞서 가신 길이며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며.  
십자가로 빛나는 소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고통이 없는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좁은 길입니다.

충현교회가 달려왔던 52년간의 믿음의 길,  
그 길의 길목에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좁은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를...

여름의 끝자락에 어느덧 가을이 성큼 물어옵니다.  
무더운 여름의 사역 속에서 충현의 온 성도들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좁고도 향한 그 십자가의 길을  
복음만 들고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합니다.  
'가을의 열매가 영결어 가듯이 우리의 복음도 열매 맺게 하소서'

2005년 9월을 맞이하며 위임목사 김 성 관



소위 '감사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 본서는 앞선 편지(고린도전서)처럼 그렇게 논리적이거나 조직적으로 짜이지 않고 매우 정적이며 친근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교회 내에 산적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긴장이 완화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편 본장은 본서의 서론부이자 특히 사도권에 대한 긴 변호를(1:12-7:16)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본장은 사도적 권위로써 문안 인사(1,2절), 환난 중에 받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에 대한 감사(3-11절), 사도바울 자신의 진실성에 관한 변호(12-14절), 선교 여행로의 변경에 따른 변호(15-24절)등의 내용으로 엮여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고난 받기로 예비된 존재입니다(딤후 1:8: 2:3). 하지만 고난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능히 그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위로와 소망을 더해 주시기 때문입니다(벧전 1:3-12). 한편 바울이 본문을 통해 자신의 사도권과 전파한 복음을 정당성을 변호한 것은, 그의 사도권 부인이 결국 그가 전한 십자가 복음의 예수님의 구속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부인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일꾼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복음의 진실성과 교회의 순수성 보존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이기심이나 탐욕을 죽이고 온전히 복음에 헌신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젠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후 1:20)

**기도 제목** 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②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매일 성경묵상

1부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빛과 열매를 맺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행함으로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목회자나 성도 모두가 함께 묵상하십시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의 방문들처럼 바울이 기쁨을 주고 받아야 할 고린도 교회에게서 도리어 슬픔과 근심만을 얻게 될까봐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정 바울의 기쁨은 다른 성도들의 영적 기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었기에, 직접 그들의 근심된 모습을 대함으로써 서로가 슬픔과 아픔을 겪기 보다는 그들을 권면하는 서신을 통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1-4절). 그럼으로써 그들의 영적 성숙을 도모하여 그들이 얻게 되는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된 성도들은 주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행동을 삼가며 절제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한 심령들을 책벌하되 그의 파멸을 위해서가 아니라 끝내 그의 영혼 구원과 영적 건강성 회복을 위해 애쓴 모범적인 목회자였습니다(5-8절).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 된 자로서의 무한한 영적 자부심을 가진 자였습니다(15절). 그리스도로 인한 희생과 그리스도로 인한 위엄, 이 양자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성품이 아니겠습니까? 실로 아름다운 향기는 눈으로 볼수 없으나,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들의 기분을 상쾌하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인 된 우리는 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은 못 심령들을 소생시키는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고후 2: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소서. ② 위임 목사님이 복음만을 전하는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고린도 교인 중 일부는, 바울이 어떤 권위있는 단체나 사람의 천거서가 없다는 이유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고 배척하려 했습니다(1절). 그 당시에는 한 개인의 권위는 그를 파견한 단체나 어떤 특정 인물의 천거서에 의해 판별되었습니다. 한편 바울은 비록 자신이 그 당시 요구되던 천거서를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사도권이 신적인 기원을 지닌 것이며, 또한 바울의 선교의 결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증생한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가장 명확한 추천서요 증인임을 강조했습니다(2-5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얻는 신약시대의 직분이 의문의 법으로 얻는 구약 시대의 직분과 비교할 때에 우월한 영광을 가짐을 지적합니다(8,9절).

주지하다시피 구약의 율법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으며 도리어 인간을 정죄하며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롬 7:9,11). 바울은 덧붙여 새 언약이 생명을 잃고 시들어가는 낡은 율법을 능가하는 영광을 준다고 확신하였습니다(6-11절). 이러한 확신에 기초한 바울의 사역은 담대하고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12절). 거기에는 오직 빛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봄으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복음 전도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약의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아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못한 까닭은 무엇입니까?(15절) 우리의 불평과 불신앙, 완고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안에서 없어질 수건을 벗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고후 3:16)

**기도 제목** 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② 예배를 수종드는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와 준비된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단지 행인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벧전 2:11). 성도가 가진 육신은 나그네 삶에서 잠시 거하는 임시 처소인 장막에 불과합니다. 이 임시 처소가 무너지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1절). 이어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7절, 엡 4:24).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재창조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피상적이 아닌 본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예수를 주(主)로 고백하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어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20절). 바울 사도는 진정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본래 세상적으로 볼 때 고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유대 사회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다(행 22:27-29).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 이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복음 전파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 영접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우리는 어떠한가요? 아직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기도 제목** ① 거하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② 교역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귀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앞장에서** 새 언약의 영광을 역설하고 난 바울은 이제 본문에 이르러 새 언약에 입각해 직분을 맡은 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러하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2절)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맡으면서도 깊이 감추어진 부끄러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수 7:1).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5절)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전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음을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7절). 우리는 분명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며 무가치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있는 구원의 복음, 즉 보배를 소유했기에 더 이상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벧전 2:7).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권세자 사단을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소망함은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 4:10)

**기도 제목** 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함을 사모하게 하소서. ②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충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1절).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였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가 사랑의 동기에서 활용되고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되어야 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의 본을 보임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권면했습니다(11-13절). 그것은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화해를 열망했던 바울은 눈물로 책망도 했고(2:3-9), 가슴 아픈 방문도 했습니다(2:1).

그 결과 바울은 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잊혀져 가고, 그들의 마음이 편견과 치졸한 자만심으로 가득찬 것을 알았습니다(12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마음을 넓혀 그리스도의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이르러 바울은 이교도와의 단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4-18절). 실로 고린도는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다양한 우상들과 그 우상 숭배에 따른 퇴폐 풍조로 인해 ‘고린도식으로 산다’는 속어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리요’(15절). 다시 말해서 우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상과 그리스도를 겸하여 섬긴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입니다.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후 6:17)

**기도 제목** ① 이제까지의 모든 죄악된 생활에서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② 충현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 사도**는 기근에 시달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고린도 교회가 구제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0,11절). 그러나 많은 액수의 연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험이나 분쟁에 휘말릴 것을 염려하여 책임자 선정에 매우 신중을 기합니다(20,21절). 그리하여 마침내 그 일을 맡을 적임자로서 자신의 동역자인 디도를 선정하여 고린도 교회에 파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디도가 자신의 충실한 동역자요,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실만한 충성된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23절).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먼저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시작했지만 1년이 지난 이 시점에까지 그 일을 완료하지 못했습니다(10절). 대신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힘에 넘치는 기쁜 헌금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의도에 준한 좋은 실천을 고린도 교회에 촉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촉구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여(有餘)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평균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즉 고린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할 것 없이,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채움으로써 서로 돌보는 일에 균형을 이루라고 권면한 것입니다(13-15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서로 함께 나누어 가지는 것에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출 16:18). 하나님께 몸된 교회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며, 나누며, 하나 되는 거룩한 복음 공동체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고후 8:14)

**기도 제목** 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속에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② 모든 예배와 집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의** 친 백성된 자들의 성결한 삶을 촉구했던 바울은 이제 자녀에게 말하듯 정감어린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울은 개인적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진리의 온전한 보존을 위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지금껏 취했던 행위들을 변론하며, 그런 변론을 기반으로 하여 더 이상 자산을 배척치 말고 영접해 줄 것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호소합니다(1-4절). 여기서 사도가 그들에게 그토록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말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들에 대한 애정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킨 거룩한 충성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근심하게 한 편지에 대해 후회도 하였으나 그 근심이 회개에 이르게 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9,10절).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을 회개시킨 근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근심이며, 경건한 근심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관심은 이제 죄를 짓고도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만이 살길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회개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과거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게 하며, 교만을 꺾어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영접하게 합니다(11절). 그러므로 회개는 사죄함을 입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성령을 받아 신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행 2:36). 진정한 회개는 한 인간의 전인격을 바치는 신령한 제사요,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드리는 산 기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고후 7:10)

**기도 제목** ① 어리석은 세상 근심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복음을 영접케 하옵소서. ② 당회원들이 성령 충만하여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서 복음 전파와 목양에 쓰이는 귀한 물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및 신약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신 16:16; 고전 16:1). 그러므로 헌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가늠합니다. 뿐만 아니라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도와 사랑을 측정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헌금이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즐겨 바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 가지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들이 약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한 헌금을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사실을 마게도냐 등지의 교회들에게 자랑함으로써 그곳 교회들이 자극을 받아 뒤늦게나마 구제 헌금에 동참토록 했습니다(2,3절). 실로 헌금은 마음이 꺼려 하거나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쁨 마음으로 즐겨 댈이 마땅합니다(7절). 연보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의 자족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 바울은 재물을 흠여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다른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며, 성도간에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그 유익성을 역설합니다(8-15절). 그러므로 자신이 나누는 사랑과 재물을 통해 주님 안에서 성도간에 뜨거운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음을 생각하시고 인색한 마음 없이 즐겨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고후 9:7)

**기도 제목** 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먼저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선한 청지기로서 맡은 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바울**은 일전에(고전 2:3) 매우 겸손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을 만난 적이 있었고, 그후 편지(고전)를 통해 그들의 죄악상을 열거하며 엄히 꾸짖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의 몇몇 반대자들은 바울을 비겁한 자라 비난하였던 것입니다(1절).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단지 육체적인 겉 모습만 보고 이렇게 평가하고 말았습니다(7,10절).

실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이기 때문입니다(고전 15:10).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 행하는 대표적인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킴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결과입니다(롬 3:23-25). 그런데도 우리가 스스로를 내세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에 한 없이 낮아질 수 밖에 없으며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란 바로 이 겸손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1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의 기쁨과 감사가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 받는 일이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18절). 오직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자랑으로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후 10:17)

**기도 제목** ① 오직 주께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역을 전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가시를 사단의 사자가 준 것으로 생각하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 주시길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처럼 사단이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겸손한 복음 증거자로 다듬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7절). 그것은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으로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 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9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보면 약해지기도 하고 고난과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할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때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라”(10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지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고전 1:26-29). 지혜 있는 자,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롬 8:26)

**기도 제목** ①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능력있게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천국 일꾼 양성에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생들이 교회의 성도를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3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서 점차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과 다른 성령에 미혹된 것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4절). 복음이라는 미명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속박과 두려움과 세상의 영이 고린도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고전2:12).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구나 거짓 사도, 궤활의 역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사단의 일꾼일 뿐입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리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15절). 교회의 참된 일꾼은 하나님의 복음만을 증거합니다(7절).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즐거합니다(23-27절). 참된 교회 일꾼인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28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의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참된 일꾼이 됩시다.

“...일꾼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딤후 2:1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② 2학기에 개강하는 교육훈련원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지은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결코 용서하지 않고 두세 증인을 통해서 그 범죄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자들이었고, 그들의 범죄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10절). 죄지은 자들에 대한 강한 경고를 한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각자 믿음을 점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니라”(5절). 하나님께 버러운 자가 누구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딤후 1:16)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버러운 자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6,7절). 고린도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한 가운데 사랑과 평강의 은총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비록 연약하여 죄를 범하는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회개와 은총의 역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엡2:22).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의 굳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골 2:5)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천군의 모든 찬양 대원들이 중심에서 나오는 영적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의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지혜로운 아들로 인정을 받습니다(7절). 자기의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죄를 자복하고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됩니다(13절).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누리고(14절), 말씀을 성실히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18절). 의인은 결코 자기의 마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입니다(26절). 그러나 악인은 의인과 정반대의 생활로 나타납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공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4,5절). 의인을 악한 길로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며(10절), 자기의 죄를 철저히 숨깁니다(13절). 자신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재앙에 빠지고 마는 것이 악인의 모습입니다(14절).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인은 그 쌓은 악인에게서 악을 낸다고 말씀하십니다(눅 12:35). 악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행 5:29). 십자가 복음을 힘있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롬 1:17).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갈 2:16).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기도 제목** ①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중현의 모든 성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미련한 자**는 항상 비교의식 속에서 살면서 타인이 자신보다 더 좋은 칭찬을 받으면 심한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2,3절). 문제는 미련한 자가 말하는 분노는 잔인하며 갑자기 밀려오는 홍수같이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는 누가 서리요”(4,16절). 잠언 기자는 분노 자체보다 그 분노를 담고 있는 미련한 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그 마음이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으로 찼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22절). 그만큼 인간의 미련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권면합니다. “내 아들이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11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눅 24:25). 미련한 사람들은 인간의 정욕과 죄악의 본성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지배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일이 생활 가운데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갈 5:19,20). 우리는 미련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갈 5:25,26).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마 25:3)

**기도 제목** ① 육체의 일에 사로잡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복음과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주변 전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 잠언의** 저자 솔로몬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 3:9).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 왕입니다. 왕의 공의로운 판단과 다스림은 나라를 견고케 하지만, 뇌물이 통용되는 나라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4절). 고위층의 부정부패는 모든 나라 전역에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12절). 그러므로 지혜로운 왕은 관원이든 자식이든 종이든 간에 차별없는 공의로운 징계로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15-19절).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권세와 다스림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준행하는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롬12:3).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십자가 복음의 지혜로운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엡 3:7)

**기도 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지혜로운 일꾼이 되게 하소서. ②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충헌복지관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을 훈계한 잠언입니다(1절).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공의와 술의 관계를 강조하며 교훈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5절). 왕이 공의를 행하는데 있어서 술이 해악을 끼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에는 나실인에게 술을 멀리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삿 13:7). 왜냐하면 나실인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즉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자는 술에 취함으로 인하여 방탕할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르무엘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에 관해서 교훈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10절). 그렇다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여인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30절).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거짓되고 헛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참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으로 주신 십자가 복음만을 의지하십시오.

“궁핍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눅 1:50)

**기도 제목** 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게 하소서. ②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교회의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본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5 절).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8 절).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요 인간의 연약함을 토설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관계 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자신의 영광을 구치 않으셨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요 8:50).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구원의 길,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빌 2:8).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11). 십자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 영광을 취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십시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롬 4:20)

**기도 제목** ① 오직 우리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좇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전도자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언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2절). 전도자는 헛됨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8절). 여기서 만물의 피곤함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인생의 단조로움과 반복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9절). 사실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인생의 허무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삶의 희의가 밀려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누려보았던 전도자는 이같은 인생의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13절).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누구나 겪고 있는 일반적인 인생사(人生史)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괴로운 인생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엡 2:1). 따라서 비록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순간까지 겸손하게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자는 괴롭고 헛된 인생 가운데서 허무와 낙심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기도 제목** ① 수고와 고난이 그치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만 따라가는 참된 신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에 속한 재단(유지·동산·복지)을 십자가의 은혜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자기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전도자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分福)이로다”(10절).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원하는 대로 소유한 것들이 결코 행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은 바깥입니다. “그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11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 고백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결코 다시 목마르지도 주리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허무와 낙심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 계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요 7:37,38). 세상의 가치있는 것들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십시오. 모든 것이 헛된 수고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와서 기쁨으로 영생의 우물물을 마음껏 마십시오(사 12:3).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고후 3:5)

**기도 제목** ①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소서. ② 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를 통해서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서 학대받는 모든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1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억울하고 괴로워 눈물을 흘리지만 세상에서는 저희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을 관심을 가지고 보십니다. 출애굽기 3장서 하나님은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 중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출 3:7).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4,15).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정확히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위로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셔서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나”(고후 1:5).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마 11:28)

**기도 제목** 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를 통해 전 교회가 하나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11절). 인간에게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잠깐입니다. 풀과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 참 생명을 얻기까지는 참된 만족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을 구원하고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구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고,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마 16:26)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엡 2:1)

**기도 제목** 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단기 선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선교지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19 절). ‘사람이 즐거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인해 이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범죄한 인간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행 3:19).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죄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라고 합니다. 천국에 슬픔이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입니다. 그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1)

**기도 제목** 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14절).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곤고한 날, 환란의 날입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곤고한 날이 있습니다. 환란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환란을 당합니다. 아마 예수 믿어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전도서 기자는 환란 당할 때 생각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요 16:33).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환란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증해 주심으로써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생각해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갈 6:14)

**기도 제목** ①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7절). 왜 사람은 먹어야 합니까?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지 헛수를 연장하는 것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일하거나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모두 즐겨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더 높은 무언가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요 12:20-28).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고후 5:17), 오직 자기 보존만을 추구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막 8:34-38).

참된 만족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엡 6:6).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요 4:34).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

**기도 제목** 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② 농어촌의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날로 부흥하여 민족 복음화의 산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1절).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잠언 기자는 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 참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엡 4:13-15)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한 마디로 하면 주님을 닮은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생활과 같아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기 위하여 힘쓰는 것이 믿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 12:2)

**기도 제목** 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이 땅에 소외받는 자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곤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 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15절). 어리석은 사람의 수고는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수고는 이 세상과 육신과 썩어져 없어질 양식을 위한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로 스스로 곤비하게 할 뿐입니다. “너희는 어찌 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2)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며 그 심신이 피곤해 있습니다. 마치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과 같이 목마른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4:14).

세상의 것은 아무리 가지고 누려도 여전히 목이 마릅니다. 그리스도 없는 세상의 변영은 오히려 번민만 더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전에는 참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인생들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목마른 자들을 영생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 7:37).

**기도 제목** 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소서.  
② ‘충현 선교 훈련 (CMTC)’을 통한 선교의 모든 훈련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나...”(1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인간은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간에 모든 것이 창조주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요 10:28, 29).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친히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게 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갑자기 세상의 물결이 밀어닥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겁이 나서 그 물결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기도 제목 ① 세상의 물결을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② 날마다 삶 속에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전도서 기자는 '헛되다'는 말을 37회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인생사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그 헛됨을 극복하기 위해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1절)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네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네 보배가 되시며 네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욥 22:24,25)라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옛날에 애굽의 나일강이 범람할 때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강물 위에 씨앗을 아낌없이 던졌습니다. 그때 저들이 던진 씨앗은 강물 밑바닥에 가라앉게 됩니다. 얼마 후 물이 빠지면 기름진 토양이 그 씨앗들을 덮어줍니다. 이윽고 싹이 나게 되고 그 후에는 풍성한 수확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의 씨입니다. 그것은 영생의 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마 13:1-9).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은 만민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눅 2:10,11). 그 씨를 받은 사람의 마음에는 반드시 영생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복음의 씨를 온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 먼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 16:31)

**기도 제목** 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② 모든 새가족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13,14절).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한 것, 말한 것, 행한 것 이 모두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죄는 결국 드러나고 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 진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단번에 구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나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계 20:13-15).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기도 제목** ① 심판을 면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소서. ② 우리 교회 모든 파송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일하며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소서.

**오늘의 우리 가정 기도제목**

# 구역예배공과

9월 구역공과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 금요모임 | 본 문         | 제 목          | 핵심 포인트                 |
|------|-------------|--------------|------------------------|
| 9/4  | 고전 11:23-25 | 주의 만찬        | 십자가를 통해서<br>승리하는 믿음의 길 |
| 9/11 | 단 12:8-10   | 다니엘의<br>믿음   | 시험을 통해서<br>승리하는 믿음의 길  |
| 9/18 | 고후 6:10     | 그리스도인의<br>비밀 | 역경을 통해서<br>승리하는 믿음의 길  |
| 9/25 | 마 14:22-33  | 두려움과 믿음      | 두려움을 통해서<br>승리하는 믿음의 길 |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증거되는 승리의 길입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떠한 시험과 역경과 두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감을 통해서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길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 1. 구역예배순서

|      |       |     |
|------|-------|-----|
| 찬 송  | ..... | 다같이 |
| 구역공과 | ..... | 인도자 |
| 기 도  | ..... | 인도자 |
| 주기도문 | ..... | 다같이 |

## 2. 구역공과전개

| 도 입                                                        | 전 개                                                                          | 적 용                                                                         |
|------------------------------------------------------------|------------------------------------------------------------------------------|-----------------------------------------------------------------------------|
| <b>마음으로 路</b><br>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 봅니다. | <b>말씀으로 路</b><br>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 <b>십자가로 路</b><br>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
| 소요시간 10분                                                   | 소요시간 25분                                                                     | 소요시간 15분                                                                    |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과 피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희생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까?

28-32:11 충현 1주 .1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희생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 1. 주의 만찬

## | 포인트 |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 | 찬 송 |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284장 (주 예수 해변서)

## | 본문: 고전 11:23-25 |

<sup>23</sup>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sup>24</sup>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sup>25</sup>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 1. 영혼의 풍성함

...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혼의 굶주림과 갈증을 채워  
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슬프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마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  
입니까?

특별한 날을 통해서 가족의 유대가 돈독해지듯이 주님과  
의 관계에서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그분의 이름이 고백  
되고 있습니까?

### 3. 성령을 통한 복음의 증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 11:26)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 |         |   |                 |
|---------|---|-----------------|
| 요 14:26 | · |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 |
| 요 15:26 | · |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
| 요 16:13 | · | 예수를 증거할 것임      |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으로 들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딤후 4:17)

## 2. 죄사함의 은총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처럼 인생을 사셨고 온갖 질고를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을 체출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을 받은 자로되 □□는 없으시니라”(히 4:15)

주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믿음의 삶을 본보이셨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내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이들이시라도 받으신 □□으로 □□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의 근원이 되시고”(히 5:8-9)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지한 마음으로 주의 죽으심과 재림을 묵상하며 주의 만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 | 간절한 기도 |

1. 언제나 예수님을 갈망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2. 성령충만으로 주를 기념하며,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 음모의 열매

다니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낯선 종교와 문화의 땅에서 교육도 받고, 바벨론의 요직에서 4명의 왕을 섬기게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 1층 천

신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위치에 위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101-8의 천 : 문명

낮고 천한 자리보다도 높은 권세와 지위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지는 않습니까?

## 2. 다니엘의 믿음

### | 포인트 |

시험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 | 찬 송 |

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514장 (누가 주를 따라)

### | 본문 : 단 12:8-10 |

<sup>8</sup>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삽나이까 <sup>9</sup>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 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sup>10</sup>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 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 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 1. 뜻을 정한 다니엘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단 1:9)

포로였던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1:3-5)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실천한 내용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1:8)

하나님이 환관장을 통해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단 1:10-16)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포로의 신분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에 따를 수 없다는 분명한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다른 길로 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을 의지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와 □□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단 2:20)

#### 4.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고전 15:58)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금령을 내려 자신 외에 그 누구도 섬기지 말 것을 전국에 명했습니다. 그것을 어길 경우 사자 굴에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던 자들은 무엇이라고 다니엘을 고발합니까? (단 6:12-13)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6:22-24)

왕은 조서를 통해서 무엇이라 증거하고 고백합니까? (단 6:26-27)

## 2. 타협하지 않는 믿음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단 1:17)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교육 기한이 다 끝난 후 그들만이 왕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은 어떠하였습니까? (단 1:20)

다니엘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는 동안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 3. 신령한 일을 깨닫는 믿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단 2:19)

왕이 꿈으로 번민하게 되었을 때, 갈대아의 술사들은 무엇이라고 변명하였습니까? (단 2:10-11)

믿음으로 왕의 꿈을 바라보게 된 다니엘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단 2:28-30)

다니엘은 믿음으로 왕의 꿈을 보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지닌 계시의 능력은 그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람

## 십자가로 路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단 12:9)

다니엘이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그 길을 가는 다니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걸어갔던 그 좁은 길이 곧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 | 간절한 기도 |

1.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사모하게 하소서.
2. 어떤 시험 속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도행전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 총 정 |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자신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 OCS 후도 : 목복

살면서 실제로 그러한 고백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 3. 그리스도인의 비밀

#### | 포인트 |

역경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 | 찬 송 |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 | 본문 : 고후 6:10 |

<sup>10</sup>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 1. 바울의 비밀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롬 9:1-2)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육체적, 내면적 역경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도바울이 당했던 고난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번 맞았으며  
세번  으로 맞고 한 번  로 맞고 세 번  하  
는데 일 주야를 깊은에서 지냈으며 / 여러 번 여행에   
의 위험과  의 위험과  의 위험과   
의 위험과  의 위험과  의 위험과  의  
위험과 거짓  중의 위험을 당하고 /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고  고 헐벗었노라 /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  
려 날마다 내 속에 놀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후 11:24-28)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 봅시다.

나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히 13:5,6)

마음은 무엇으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 13:9)

## 4. 미래에 대한 비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 14:2)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아름다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마음은 늘 기쁨으로 뛰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딤후 4:8)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이 되면 우리가 그와 □□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 볼 것을 인함이니”(요일 3:2)

## 2. 죄 사함의 비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시며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 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 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용서하시고 깨끗케 하셨기 때문에, 신자들이 소유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 3. 동행의 비밀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1)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지켜보십니다. 주님은 영원한 피난처이시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주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 십자가로 路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모두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비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 | 간절한 기도 |

1.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가 깨끗이 씻겨진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2. 당장의 현실적인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위로받고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것은 영적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필요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 4. 두려움과 믿음

### | 포인트 |

두려움을 통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길

### | 찬 송 |

457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49장 (이 세상의 친구들)

### | 본문 : 마 14:22-33 |

<sup>22</sup>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sup>23</sup>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sup>24</sup>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sup>25</sup>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sup>26</sup>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sup>27</sup>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sup>28</sup>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sup>29</sup>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sup>30</sup>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sup>31</sup>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sup>32</sup>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sup>33</sup>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설교 본문 읽고 나누기

## 1 무리를 먹이신 후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 14:22)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신이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 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 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 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막 1:7,8)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베드로가 예수께 던진 시험이라 할 수 있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말은 누구의 시험과도 유사합니까?

의심과 두려움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마 14:30)

## 4. 믿음이 적은 자여

...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 14:31)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물음은 우리에게 던져진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 등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조차도 긴장과 무력, 두려움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 2.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요 6:15)

분봉왕 헤롯을 통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과 절망,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 예수님은 어떠 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믿음이 없다면 사람들의 결정은 어떠하게 되며,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3.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마 14:27)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폭풍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렀습니다.

## 십자가로 路

언젠가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그분이 바로 우리가 의뢰해야 할 분입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무력함과 두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 | 간절한 기도 |

1. 자신이 중심이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2. 일상에서 경험하는 두려움과 연약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 두려움과 믿음

(마 14:22-33)

## 무리를 먹이신 후

많은 무리들을 먹이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22절). 예수님의 결정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이미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어서 심지어 분봉왕 헤롯조차  
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영적인 권능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마 14:12). 이 사악  
한 왕은 최근 세례 요한을 죽이고서 그가 예수님으로 되살아났다고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보내진 사람이었습  
니다(막 1:2-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 군병들, 농부들, 바리새  
인들, 상인들 할 것 없이 모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  
해 그에게 나아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메를 풀  
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  
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막 1:7,8). 그는 자기 뒤에 오실 메시  
야,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파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믿었  
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 중심에  
는 영적인 메시야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야에 대한 갈망이 자리잡고 있  
었습니다.

## 제자들을 재촉하사

# 남성도구역예배공과

후 [시아] 림도무

‘남성도구역공과’는  
‘구역예배공과’ 중  
‘제4과’를 해당공과로 삼아서  
공부하기로 합니다.

시아후림 올림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사자가 사악한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혼란과 절망, 공포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나아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셨습니다(마 14:14). 주님의 사역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헤롯왕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주님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후 무리들이 자신을 억지로 잡아 왕으로 세우려는 것을 아시고(요 6:15) 주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에게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두려움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무리들을 떠나보냈습니다.

##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2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은 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배에 올라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람과 파도의 움직임이 거세졌습니다. 노를 저으려고 애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은 아주 급박해져갔고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바다 속에 용이나 다른 괴물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다가오자 귀신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결정적인 상황에서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을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금방이라도 괴물에게 잡아먹힐 것처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아마 세상적인 메시아를 찾

있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즉시 말씀으로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27절).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28절). 베드로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 4:6).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는 영리하게도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을 비교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예수님이 아니라 사단이 베드로의 믿음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 믿음이 적은 자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31절).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믿습니까? 정말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때려눕힌 일과 마리아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끔찍한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실제로 생각하십니까? 혹시 세상적인 것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철석 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해답이요, 한 분뿐인 구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참 목자이십니다. 마귀가 사는 곳은 물 속이 아닙니다. 마귀는 오히려 두려움이라는 처소에서 번성해집니다. 마귀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 생기는 질투를 좋아합니다. 불안정 속에서 나오는 탐욕을 좋아하고, 처벌을 두려워함으로 꾸며대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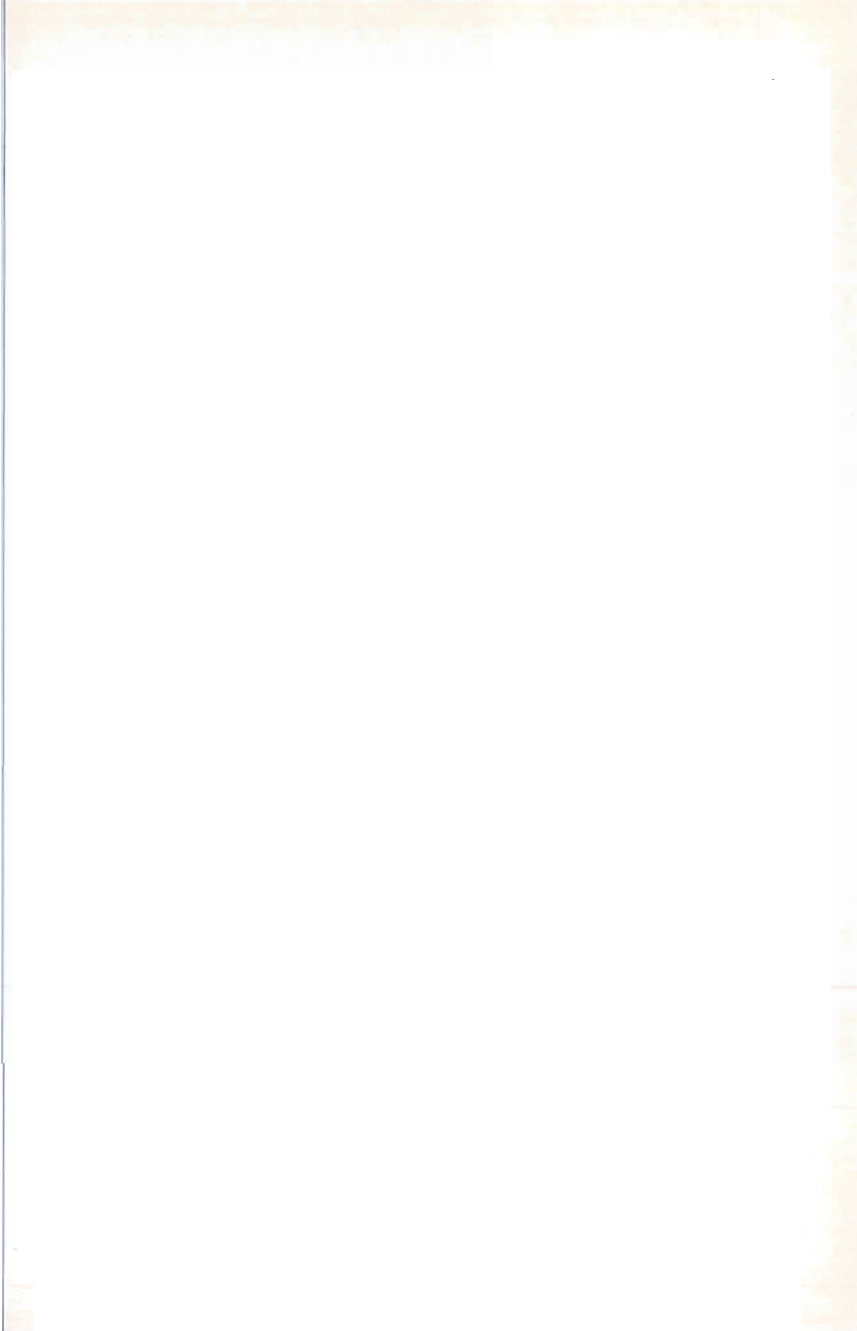
##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두려움, 때때로 공포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신학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조차도 긴장과 무기력, 두려움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에 차서 기다리는 중에도 두려움은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땅과 하늘은 사라지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혹시 여러분은 아이들이 장난감 전화기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아이들이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그 분이 바로 우리가 의뢰해야 할 분입니다. 아멘.









## 가정예배 안내

---

### 예배순서

|              |      |
|--------------|------|
| 찬 송 .....    | 다 같이 |
| 성경봉독 .....   | 사회자  |
| 메시지 낭독 ..... |      |
| 기 도 .....    | 다 같이 |
| 주 기도 .....   | 다 같이 |

###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

### 충현의 만나 2005년 9월호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노항현

집필진 | 만나 : 최종철(1-10일), 이재영(11-20일), 이창수(21-30일)

구역예배공과 : 김성훈 목사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